

협회 소식

직판장 운영협의회 개최

—직판장 운영 협의기구 설치키로—



본회는 지난 1월 10일 본회 회의실에서 노영한 전무, 조옥봉 이사를 비롯, 직판장 운영지부과 관련 지부 지부장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직판장 운영협의회를 개최하고 직판장 운영상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본회의 직판장들은 축산물 유통가격 안정과 소비증가에 큰 몫을 담당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앞으로 국내 축산물 가격을 직판장에서 조정, 통제, 선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에서도 본회 직판장들의 이러한 역할을 인정하고 시설, 세제상의 지원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직판장수가 점차 많아짐에 따라 협

회 내에 직판장 운영 협의기구를 설치하여 직판장 운영을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자는 데 합의했다.

한편 직판장 운영은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소비촉진과 가격안정 등 양돈업 자체의 보호를 위한 사업이라고 밝히고 현재 직판장 운영이 부진한 지부의 활성화를 위해 가격경쟁 위주의 운영을 지향하고 소비자에 대해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국내외 선진지 견학을 통해 우수직판장의 운영사례를 직접 배우고, 직판장의 간판, 진열대, 진열방법 등을 통일시켜 나가기로 했다.

자금지원에 관해서 노영한 전무는 현재 직판장 운영 자금을 축진기금에서 보조받는 것은 본회가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힘들고 융자를 받는 방법이 있는데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면 자금지원이 좀 더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천지부 직판장에서는 현재 학교급식에도 납품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직판장 운영의 묘를 살린 본보기로 평가받고 있으며, 청주지부에서는 직판장 설립자금을 충북도의회에 건의하여 지원받아 우수직판장 운영사례를 종합하면 앞으로 직판장 운영을 계획하고 있는 지부에게 좋은 정보가 될 것으로 보인다.

'93년 종무식, '94년 시무식 개최



본회는 지난 12월 31일 종무식을, 1월 3일에는 시무식을 갖고 새해 업무를 시작했다.

시무식에서 전동용 회장은 UR 타결로 우리 축산이 더욱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하고 전직원은 새로운 각오와 봉사정신으로 새해업무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주인의식과 희생정신으로 회무에 더욱 충실히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종돈장 위생관리 요령(안)에 대한 의견 제출

본회는 지난 1월 15일 종돈장 위생관리 요령(안)에 대한 의견을 농림수산부에 제출했다.

본회는 이 의견서에서 이번 종돈장 위생관리 요령(안)에 대해 많은 농장이 반대하고 있다고 밝히고 종돈장의 위생관리 요령의 기본 취지를 종돈장을 차등화하는 방향으로 잡아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동요령 제2조 축사의 환경위생관리, 제3조 종돈장 소독 및 격리 등, 제5조 내외부 기생충 구충 등의 조항은 권장사항으로 명시하거나 자율적으로 실시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제2조 축사의 환경위생관리에 대한 규정에는 돈사의 온도는 15~25°C, 습도는 60~70%, 산소는 15%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탄산가스는 1% 이하, 유화수소 및 암모니아가스는 10ppm 이하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다.

제3조 종돈장 소독 및 격리 등에 대한 조항에는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소독을 해야 하며 종돈장 입구와 모든 돈사의 출입구에는 소독시설을 설치하고 출입자와 차량, 기구 등을 소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회는 이러한 규정 조항들이 현실성이 결여된다고 판단, 권장사항 내지 자율실태로 요청한 것이다.

또한 제6조 입식종돈의 질병검사에 대한 규정조항에는 종돈 입식시에는 입식전 30일 이상 격리사육하고 임상검사와 실험실 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있으나 본회는 실시방법상의 난점을 이유로 들어 격리사육에 대한 조항만을 살리고 나머지 조항은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제4조 백신접종에 관한 조항에 대해서는 각 농장의 조건과 백신의 종류 등을 감안해 줄 것과 SPF, MEW돈 여부를 확인하는 조치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본회, '93 양돈자조금사업 실적 보고

본회는 지난 1월 11일 농림수산부에 '93 양돈자조금 사업 실적을 보고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93년도의 자조금사업비 수입금액은 총 149,613,649원으로 이 중 생산자자조금은 65,464,400원, 연수협찬금이 9,050,000원, 홍보협찬금이 74,939,120원이다.

이 중 생산자자조금에는 '93년 자조금 48,962,550원과 '92년 자조금 16,501,85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연수협찬금에는 참가비 7,350,000원, 찬조금 200,000원, (주)퓨리나코리아의 협찬금 1,500,000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홍보협찬금에는 전동용 회장의 22명의 협찬금, 부회장, 이사, 도협의회장, 지부장 등의 협찬금, 건

국대학교 정찬길 교수 협찬금, 제10회 양돈인대회 협찬금, 계통출하 수수료 등이 포함되어 있다.

지출금액은 146,691,200원으로 소비촉진 홍보사업에 63,466,650원, 정책개발 연구사업에 128,400원, 생산자·소비자 계도교육 홍보사업에 68,033,210원, 생산성 향상 및 상품개발 연구사업에 58,400원, 일반관리비에 15,062,940원이 각각 지출되었다.

소비촉진 홍보사업에는 돈육요리강습 및 시식회와 홍보물 제작 및 홍보활동사업, 생산자·소비자 계도교육 홍보사업에는 생산자교육과 양돈인대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의 활동이 포함되어 있다.

소비촉진 홍보물 제작·배부

본회는 최근 소비촉진 홍보용 포스터 3종, 표어 4종, 리플렛 1종 등을 새로 제작, 각 도협의회와 지부 등에 배부했다.

최근 돼지고기 생산비 이하로 떨어짐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돼지고기의 우수성을 알려 소비를 촉진코자 제작된 이번 홍보물 중 포스터는 “돼지고기, 이제 미용식으로 즐기세요!”, “건강과 미용의 비결 돼지고기”, “돼지고기 먹는 가정, 웃음 함빡 건강 가득”이라는 제목

아래 가족들이 함께 즐기는 단란한 모습과 미용체조와 자전거 하이킹을 하는 젊은 여성의 산뜻한 모습을 담아 제작되었다.

표어는 “돼지고기 많이 먹어 도시공해 이겨내자” “미용만점 건강만점 맛도 좋은 돼지고기”, “돼지고기 먹는 가정 웃음 함빡 건강 가득” “샘처럼 솟는 힘 돼지고기 먹은 힘”이라는 문구로 제작되었다.

리플렛은 “건강식품, 미용식품! 신토불이 돼지고기”라는 제목으로 제작되었다.

비료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본회는 지난 1월 11일 부산물 비료의 포장판매에 대한 규제 완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비료관리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농림수산부에 제출했다.

본회는 동법 제23조(적용의 예외) 2항의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 또는 요식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생산과정의 부산물인 비료를 다른 비료의 원료로 판매하거나 포장하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 또는 요식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생산과정의 부산물을 판매하거나 다른 비료의 원료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고쳐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본회가 이와 같이 의견을 제출한 것은 일반 양축농가들이 축산업 영위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그 운반의 용이를 위해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산물 비료 생산·판매업자와 동일하게 이 법의 규제를 받고 있는데 일반 양축농가들이 부산물을 토양개량 및 유기질 자재로서 용이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포장여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주기 위해서이다.

인천지부 창립 20주년 기념식 개최

본회 인천지부(지부장 : 정진섭)는 1월 10일 정오 인천시 갤럭시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창립 20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기념식에는 본회 이명복 부회장 및 노영한 전무, 정진섭 지부장, 경기도내 지부장을 비롯한 1백여명의 회원들이 참석, 대성황을 이뤘다.

이날 기념식에서 정진섭 지부장은 축산진흥과 양돈인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에 크게 기여한 본회 전동용 회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한편 전동용 회장도 양돈경영안정 및 양돈인의 권익신장, 협회조직 활성화에 노력한 정진섭 지부장에게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공로패를 전달했다.

또한 정진섭 지부장은 지부발전에 크게 기여한 유일상 씨 등 4명에게 20주년 기념패를, (주)대신산업 국병록 이사 등 2명에게 감사패를, 정광윤 감사 등 2명에게 공로패를, 장무성 전무 등 2명에게 10년 근속상을 각각 수여했다.

인천지부는 지난 '74년 1월 1일 22명의 회원들이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이 날 20주년을 맞은 것이다.

그리고 '80년도에 회원 34명이 2천만원을 출자해 마을금고를 개설한 후 작년말에 자산 16억원을 달성하고 '90년에는 지하 1층, 지상 4층의 사옥을 마련하는 등 눈부신 발전을 해오고 있다.

인천지부는 월 6천두의 돼지 계통출하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월 1천3백톤의 배합사료를 공동구매하고 있다. 또한 새마을금고 여수신 사업과 회원들의 돼지출하 편의를 돋기 위한 차량운행지원과 회원들을 위한 후생복지사업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 정진섭 지부장이 기념사를, 이명복 부회장이 축사를 했다.

협회단신

본회 직원 채용



이윤희 양

본회는 원활한 회무 추진을 위해 지난 1월 10일 지도부에 이윤희 양을 새로 채용했다.

이 양은 동국대학교 전산교육원을 나왔다.

한편 지도부에 근무하던 홍혜선 양과 유정화 양은 개인사정으로 퇴직했다. ■

